

3) 혼례복

30~40년 전만 해도 신랑은 바지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가슴과 등에 쌍학홍배를 달은 청색 관복을 입었다.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허리에는 각띠를 띠며 발에는 버선을 신고 목화를 신었다. 신부는 다홍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초록원삼을 입었으며 족두리를 썼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신식결혼을 많이 하여 신랑은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으며, 신부는 흰 웨딩드레스를 입는다. 그러나 폐백시에는 우리 전통의 풍습대로 한복을 많이 입는다. 신랑은 구식결혼 때와 마찬가지로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원삼에 족두리를 쓴다. 그리고 초록원삼을 입고 그 속에는 취향에 따라 분홍색, 빨강색, 또는 다홍치마에 노랑저고리나 초록저고리를 입는다.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보내는 함 속에는 양반은 청색과 홍색 치마 두 갑과 잘살라는 뜻으로 청실홍실을 보낸다. 한복감은 주로 양단, 진양단, 명주, 뉴우틴, 하비단, 갑사, 고사, 향라, 모시, 목운단, 실크, 공단, 법단, 숙수 등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라고 고추를 넣고 딸을 낳으라고 솟을 넣는다. 목화나 밤을 넣는 가정도 있고 노잣돈을 넣기도 하며, 사주단자와 혼서지를 넣는다. 폐물로는 목걸이·팔찌·시계·노리개를 넣고 요즈음엔 핸드백이나 화장품을 넣기도 한다.¹⁾

이외에도 비를 맞지 않기 위해 만들어 입은 우장이 있다. 주로 장마철에 농사 지을 때 사용되었다. 우장에는 갈대우장·접사리·대나무삿갓·벚짚우장·띠나무우장 등이 있다. 갈대우장은 갈대로 만들어 망토식으로 둘러썼으며, 접사리는 길쭉하게 생겨 모를 심을 때 썼다. 짚도리·짚도롱이라 불리는 벚짚우장은 짚에 물이 쉽게 스며들어 비에 젖으면 무거워진다. 반면 띠도리·띠도롱이라고 불리는 띠나무우장은 부드럽고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가벼워 좋다고 하는데, 띠풀이란 잎이 넓죽하고 어른 키 정도로 자라는 풀로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1) 유희경, 앞의 책.

